

6/7/20

설교 제목: 아브람의 신앙 고백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14 장 17-24 절

- (창 14: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 (창 14: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 (창 14: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 (창 14: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 (창 14:21)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 (창 14:22)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 (창 14:23)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 (창 14:24)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 벨라가 조공 문제로 자신을 배반하자 시날 왕 아르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고임 왕 디달이와 연합하여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을 침공했습니다.

이에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 벨라도 동맹하여 대항했습니다.

이 전쟁은 당시 최강국이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었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포로와 전리품들을 챙겨 갔습니다.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브람은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히브리 사람이 조카 롯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조카 롯의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곧장 가신 318 명을 데리고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뒤쫓아가 쳐부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호바까지 가서 롯과 그가 빼앗겼던 재물 뿐만 아니라 그외 포로로 잡혔던 자들 그리고 그들이 빼앗겼던 재물까지 모두 찾아 왔습니다.

아브람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쳐부수고 잡혀갔던 포로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전리품까지 다 찾아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소돔 왕 베라는 사웨 골짜기까지 아브람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창 14: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람과 그 일행을 맞이하였습니다.

(창 14: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아브람에게 축복 기도를 해 줍니다.

(창 14: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 14: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는 사실로 살렘 왕 멜기세덱의 지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축복 기도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기도합니다.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기도를 들은 아브람은 이번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힘과 실력으로 거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주었습니다.

아브람이 거둔 승리는 창과 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제사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브람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쳐부순 것입니다.

그 일에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도운 것입니다.

아브람은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상기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에서 십분의 일을 떼어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전리품의 십분의 일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징표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마중 나와 축복한 것에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살렘 왕이라는 것과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 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 7: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 (히 7:2)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 (히 7:3)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 (히 7:4)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 (히 7:5)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 (히 7:6)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 (히 7:7)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 그 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요,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해 존재하는 왕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타락한 그의 백성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도록 중재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었고 따라서 족보도 없고 출생도 사망도 없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처음이요 나중이며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인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이 약속의 땅에서 아브람을 영접함으로써 미래에 있게 될 메시아 왕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브람의 믿음은 한층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소돔 왕과의 대화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 14:21)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창 14:22)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창 14:23)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영접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만  
자신에게 돌려 주고 빼앗겼다가 되찾아 온 물품들은 모두 아브람이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호의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여 빼앗아 온 것들은 전리품이라고 하여 승리자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람이 승리하여 찾아 온 포로들과 물품들은 모두 아브람 몫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아브람이지만 아브람은 전쟁에서 얻은 어떤 것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왜그랬을까요?

소돔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 들일 경우 그가 그것을 빌미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람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람이 하나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소돔 왕이 아브람이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이 준 재물로 인함이었다고 그 공을 자신에게로 돌릴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람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신의 지혜와 힘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깨닫고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람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드러나 알게 된 천지의 주재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존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다만 아브람은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 먹은 것과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거기서  
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창 14:24)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것들은 전쟁에서 발생한 비용이니 당연한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언약을 이미 받았었습니다.

(창 13: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창 13: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 13: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창 13: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땅을 자신과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은 이때까지 하나도 실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직 실현될 조짐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아브람에게 있어서 '자손 언약'은 참으로 믿기 힘든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람에게는 티끌 같은 자손은 커녕 당장 대를 이을 아들조차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데 자손을 티끌 같이 많이 주신다니요.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 이미 75 살이 넘었고 아내 사래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 4 개국과 가나안 남부 사해 동맹 5 개국 간에  
전쟁이 터졌고 이 전쟁에서 당시 최강국 엘람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국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으로 하여금 그 전쟁에 뛰어들어 큰 승리를 거두고 포로들과 전리품을  
취해 돌아가는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쳐부수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멜기세덱을 통해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당신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아브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람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에 주셨던 '땅의 언약'뿐만 아니라 '자손 언약'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믿음을 불러 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이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람같이 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쳐 신앙을 고백한 것과 같이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